

## 東武 李濟馬의 人間觀에 관한 研究

-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을 중심으로 -

임진희\* · 이익주\* · 고병희\*\* · 송일병\*

### Abstract

## The Study about Dong-mu's Thought on Human in 『Dongyi Suse Bowon Sasang Choboguoan』

Lim Jinny\* · Lee Eui Ju\* · Koh Byung Hee\*\* · Song Il B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1. Objects of a study

Dong-mu emphasized knowing who he or she is to treat disease, so this paper was written to summarize Dong-mu's thought on human

### 2. Methods of a study

『Dongyi Suse Bowon Sasang Choboguoan』 is Dong-Mu's early writing, this writing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which are 「Won-in(原人)」· 「Byung-byun(病變)」· 「Yak-bang(藥方)」. This is chiefly written on human, so this paper was written by summarizing Dong-mu's general and constitutional thought on human in 「Dongyi Suse Bowon Sasang Choboguoan」

### 3. Results and Conclusion

1. Dong-mu's viewpoint of human in 「Dongyi Suse Bowon Sasang Choboguoan」 is viewpoint of human in the base of 'Human Nature(人性)-Human Form(人形)' and viewpoint of human in the base of 'Affairs-Mind-Body-Objects(事心身物)'.

2. The general viewpoint of human suggested in 「Dongyi Suse Bowon Sasang Choboguoan」 is that 'Nature-Emotion(性情)' is a action of mind and 'Knowing-Acting(知行)' is a action of body in human. He emphasized that we should try to become saint through controlling 'Nature-Emotion(性情)' and 'Knowing-Acting(知行)'.

3. It was thought that The span of life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volume of Qi(氣) existed in the smallest organ. To manage the Qi(氣) existed in the smallest organ, it is very important to recover 'Good Qi of each constitution(體質正氣)' through cultivating Heart and body.

4. The constitutional viewpoint of human suggested in 「Dongyi Suse Bowon Sasang Choboguoan」 is that Human is classified into four constitutions according to 'Natural Principle of Organ(臟腑性理)' of 'Human Nature(人性)' mind and 'Knowing-Acting(知行)' of 'Human Form(人形)'.

5. The viewpoint of human suggested in 「A Aphorism in Teaching Children(教子平生箴)」 emphasized 'Heart(心)', but The viewpoint of human suggested in 「Dongyi Suse Bowon Sasang Choboguoan」 emphasized 'Natural Principle of Organ(臟腑性理)' of 'Human Nature(人性)' mind and 'Knowing-Acting(知行)' of 'Human Form(人形)' and developed the viewpoint of human suggested in 「Dongyi Suse Bowon」.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한국한의학연구원

교신저자 : 임진희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01-25 201호 (전화) 011-9992-2968

E-mail) 740424jh@hanmail.net

## I. 緒 論

東武公은 100여년전 四象醫學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東武公이 四象醫學의 體質病證論을 완성하기 전에도 東洋醫學에는 각 사람의 체질에 관한 인식은 있었다. 東武公도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에서 “『靈樞』중에 太少陰陽五行人論이 있는데, 대략 外形만 말하고 五臟의 이치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東醫壽世保元·醫源論』에서는 “少陰人의 病證藥理는 張仲景이 거의 상세히 밝힌 것을 宋·元·明의 모든 의학자들이 거의 완벽할 만큼 자세히 밝혔다. 少陽人의 病證藥理는 張仲景이 절반 정도 상세히 밝힌 것을 宋·元·明의 모든 의학자들이 거의 상세히 밝혔다. 太陰人의 病證藥理는 張仲景이 대략 그림자만 비친 것을 宋·元·明의 모든 의학자들이 절반쯤은 상세히 밝혀놓았다. 太陽人의 病證藥理는 朱震亨이 약간 그림자만 얻었고 『本草』에도 약의 이치가 대략 적혀 있다.”고 하여 기존에도 각 체질의 특징에 관한 인식은 있었으나 각 체질을 구분하고 각 체질의 病證藥理를 완성한 것은 東武公에 이르러서 이다. 또한 이러한 東武公의 病證藥理도 초기부터 완벽한 양식을 보인 것이 아니라 저서를 거치면서 서서히 완성되었다. 그런데 東武公의 醫學을 기존의 證治醫學과 비교해 보면, 기존의 證治醫學은 질병의 치료에서 病證 위주로 질병을 파악하여 치료가 이루어진데 반하여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에서 “명확하게 그 사람을 감별하고 또 명확하게 그 증세를 알면 응용하는 약 처방은 반드시 의심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병을 치료함에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다음으로 病證을 파악하고 질병을 치료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보면 東武公의 醫學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人間觀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인간에 관한 이해가 病證에 관한 이해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사고는 그의 醫書의 구성에

서도 반영되어, 그의 주요 醫書인 『東醫壽世保元』의 구성은 기존의 醫書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존 醫書는 주로 인체의 生理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되는데 반하여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原人」이나, 『東醫壽世保元四象甲午舊本』과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는 「性命論」·「四端論」·「擴充論」에서처럼 人間觀에 관한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의 「病變」이나, 『東醫壽世保元四象甲午舊本』과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는 「臟腑論」처럼 질병이나 인체의 생리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의 醫書와 유사한 내용으로 넘어간다. 이를 통하여 보면 東武公의 醫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疾病觀뿐만 아니라 人間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東武公은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인간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철학적인 사유를 그의 저서에 서술하였는데, 그의 저서를 보면 『濟衆新編』·『廣濟說』·『格致藁』·『東醫壽世保元』 등이 있으며, 『濟衆新編』·『格致藁』는 東武公의 철학서라 볼 수 있고, 『東醫壽世保元』은 그의 醫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은 그의 초반기의 醫學과 哲學的 사고를 정리한 서적으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 관한 논문으로는 李<sup>5)</sup>의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李濟馬의 四象醫學觀에 관한 비교고찰」, 金<sup>9)</sup>의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의 養生에 관한 考察」, 玉<sup>3)</sup>의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 初版本의 비교를 통한 사상방제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金<sup>10)</sup>의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과 東武遺藁의 素證에 관한 考察」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이는 주로 東武公의 疾病觀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東武公의 人間觀에 관한 논문은 宋<sup>1)</sup>의 「李濟馬의 儒學의 人間觀과 醫學精神」이었으나 이 논문도 그의 모든 저서를 아우르며 그의 人間觀과 疾病觀을 함께 정리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의 초기 사고를 잘 정리한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을 중심으로 東武公의 초기 人間觀에 관하여 考察하려고 한다.

## II. 研究方法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sup>1)</sup>에서 사용된 ‘原人’이라는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原人’은 크게 세 가지의 개념이 있다. 하나는 원시시대의 인간인 원시인이라는 개념이며, 둘째는 신중한 사람이나 성실한 사람이라는 개념이며, 셋째는 人生의 근원을 추론한다는 개념인데<sup>2)</sup>.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사용된 ‘原人’이라는 용어는 ‘人生의 근원을 추론한다’는 개념으로 초기 저서인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은 자신의 人間觀을 정리한 篇이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을 중심으로 東武公의 人間觀에 관하여 정리하려고 한다.

東武公의 주요 저서인 『東醫壽世保元』에서 東武公이 자신의 人間觀에 관하여 정리한 양식을 살펴보면, 도입 부분인 「性命論」에서는 인간의 공통요소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고 공통요소에 관한 언급이 이루어진 후에 「四端論」·「擴充論」에서는 인간을 四象體質로 분류하고 각 체질의 차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서술되어 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東武公의 초기 人間觀에 관하여 정리함에 이러한 양식을 따라 一般論的 人間觀에서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을 중심으로 인간의 공통요소에 관하여 인식한 내용을 정리하고 體質論的 人間觀에서는 인간을 四象體質로

분류한 근거와 각 체질별 특성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을 정리한 후에 기존의 『教子平生箴』이나 『東醫壽世保元』의 人間觀과 비교하여 정리하려고 한다.

## III. 本論

### 1. 一般論的 人間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東武公은 인간은 性·命에 근거하여 태어나며, 性은 知行(仁義禮智 忠孝友悌와 같은 諸般百善)으로 주어지고 命은 衣食(士農工商 田宅邦國과 같은 諸般百用)으로 주어진다<sup>3)</sup>고 인식하였다. 즉 인간은 善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요소와 用이라는 형이하학적인 요소를 함께 갖춘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東武公은 이렇게 존재하게 된 인간을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인식하였는데, 하나는 인간을 心身 兩面에서 인식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事心身物로 인간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一般論的 人間觀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인간을 인식한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東武公이 인간의 중요한 삶의 목표로 제시한 壽에 관한 東武公의 사고를 東武公의 壽命觀으로 정리해 보려고 한다.

#### 1) 心身 中心의 人間觀

인간을 心身 兩面으로 인식하면 기존의 ‘肝心脾肺腎’이라는 五臟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心은 ‘中央之太極’으로 인식하고, 肺脾肝腎은 ‘四維之四象’으로 인식하였으며<sup>4)</sup> 여기

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은 1989년에 이르러서야 한국에 소개된 서적으로 延邊朝鮮族自治州民族醫學研究所에서 1985년 발간한 『朝醫學』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1951년 金九翬이 手抄하고 宋·炳所藏本人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을 근거로 東武公의 초기 人間觀을 정리하였다.

2) 李相殷: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87, p.210

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一統』

“天生萬民 性以知行 萬民之生也 有知行則生 無知行則死 知行者德之所由生也. 註 仁義禮智忠孝友悌 諸般百善 皆出於知行. 天生萬民 命以衣食 萬民之生也 有衣食則生 無衣食則死 衣食者道之所由生也 註 士農工商田宅邦國 諸般百用 皆出於衣食.”

4) 『東醫壽世保元·四端論』

: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

서 心은 心身の '心'으로, 肺脾肝腎은 心身の '身'으로 배속하였다. 그리고 心에서는 '性情'이 이루어지고 身(肺脾肝腎)에서는 '知行'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였다. 心에서 이루어지는 '性情'은 性理와 情欲으로 나누어지며, 性理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健剛柔順이며, 情欲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喜怒哀樂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性理의 치우침을 막기 위해서는 中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며, 情欲의 치우침을 막기 위해서는 節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性情을 설명하기 위하여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제시된 健剛柔順과 喜怒哀樂은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는 仁義禮智와 喜怒哀樂으로 변하고, 喜怒哀樂의 발현여부와 양상에 따라 性과 情으로 구분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또한 肺脾肝腎에서 이루어지는 知行은 "肺는 事務를 알도록 하고, 脾는 交遇를 알도록 하며, 肝은 黨與를 알도록 하고, 腎은 居處를 알도록 한다. 肺는 籌策을 행하게 하고, 脾는 謀猷를 행하게 하고, 肝은 材幹을 행하게 하고, 腎은 便宜를 행하게 한다."<sup>6)</sup> 라고 설명하였으며, 肺脾肝腎의 知行에서 '知'는 肺脾肝腎의 性用으로 이루어지며 '行'은 肺脾肝腎의 形用으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였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제시된 肺脾肝腎의 知는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의 人事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行은 용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의 頤臆臍腹과 頭肩腰腎에서 이루어지는 知·

행과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肺脾肝腎의 知로 이루어지는 事務·交遇·黨與·居處는 衆同하며 天으로 '天下所成之局'으로 설명하고 肺脾肝腎의 行으로 이루어지는 籌策·謀猷·材幹·便宜는 由己하며 人으로 '一人所作之器'로 설명하였는데<sup>8)</sup>, 이를 통하여 보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肺脾肝腎에서 이루어지는 知行은 『東醫壽世保元』의 知行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知는 인간이 주위의 환경이나 大衆과 더불어하는 측면이며, 行은 개인을 위하여 행하는 측면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人性·人形에 의한 人間觀

人形	四象	弄心身物	知行之象	太陽之知 知而過也. 少陰之知 愚而不及也. 太陰之行 賢而過也. 少陽之行 不肖而不及也.
	兩儀	心身	知行 (身)	肺 肺知事務 肺行籌策 脾 脾知交遇 脾行謀猷 肝 肝知黨與 肝行材幹 腎 腎知居處 腎行便宜
人性	太極	心	性情	心 健剛柔順 性理之四偏也 喜怒哀樂 情欲之四偏也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인간은 心이라는 人性의 영역이 있으며 이는 아직은 발현되지 않은 性의 상태이며, 身이 작용을 하여 形化되면 知行이 되고 이를 肺脾肝腎이 담당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외부로 드러나는 知行에서 肺脾

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三統』  
“健剛柔順 性理之四偏也 喜怒哀樂 情欲之四偏也 性理之偏 行之而察中焉則 求也 情欲之偏 行之而察節焉則 得也.”  
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一統』  
“肺知事務 脾知交遇 肝知黨與 腎知居處 肺行籌策 脾行謀猷 肝行材幹 腎行便宜.”  
7)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四統』  
“性有性用 性用知也 形有形用 形用行也 一知一行 一生一成 易簡相得者 謂之兩儀.”  
8)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一統』  
“事務衆同也 籌策由己也 交遇衆同也 謀猷由己也 黨與衆同也 材幹由己也 居處衆同也 便宜由己也 衆同者天也 由己者人也 天者天下所成之局也 人者一人所作之器也.”

肝腎의 知로 이루어지는 人事에서의 能·不能에서의 편차를 세밀히 언급하고 이로 인해 欲心과 放心이 형성된다고 인식하였다. 즉 知行에서의 문제로 心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았는데, 이에 관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人事에서 四象 體質別 能·不能은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서도 보이나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 우선 安身과 接人에 따라 人事의 能·不能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여기서 接人은 타인이나 事物과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심리적인 긴장상태 이고, 安身은 개인적인 獨居상태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太少陰陽人 별로 人事의 能·不能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로 인해 欲心과 放心이 형성된다고 제시하였다.

즉 安身에서는 太陽人은 居處는 잘하나 事務는 못하고, 少陽人은 事務는 잘하나 居處는 못하고, 少陰人은 黨與는 잘하나 交遇는 못하고, 太陰人은 交遇는 잘하나 黨與는 못한다<sup>9)</sup>. 그리고 이로 인해 太陽의 欲心은 居處에서는 속이기 쉽고 事務에서는 인식하지 않으며, 少陰의 欲心은 事務에서는 인식하나 居處에서는 속이지 않으며, 少陽의 欲心은 黨與에서는 게으르나 交遇에서는 사치하지 않으며, 太陰의

欲心은 交遇에서는 사치하나 黨與에서는 게으르지 않다<sup>10)</sup>. 이러한 상황으로 欲心이 형성되는데 太陽人은 忿懣之心이, 少陰人은 好樂之心이, 少陽人은 憂患之心이, 太陰人은 恐懼之心이 항상 마음 속에 있다<sup>11)</sup>.

또한 接人에서는 太陽人은 交遇에는 능하지만 黨與에는 능하지 못하고, 少陰人은 黨與에는 능하지만 交遇에는 능하지 못하고, 少陽人은 事務에는 능하지만 居處에는 능하지 못하고, 太陰人은 居處에는 능하지만 事務에는 능하지 못하다<sup>12)</sup>. 그리고 이로 인해 太陽人의 放心은 交遇에는 교만하나 黨與에는 속이지 않고, 少陰人의 放心은 黨與에는 속이나 交遇에는 교만하지 않으며, 少陽人의 放心은 事務에는 오만하나 居處는 업신여기지 않고, 太陰人의 放心은 居處에 업신여기나, 事務에는 오만하지 않다<sup>13)</sup>. 이러한 상황으로 放心이 형성되는데, 太陰人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고 좋은 집에 거처하려는 樂心을 중시하고, 少陰人은 게으른 마음이 지나치고 黨人에서 有利하려는 喜心을 중시한다. 少陽人은 스스로 사사롭게 하는 마음이 지나치고 크게 일을 더붙어 하려는 哀心을 중시하고, 太陽人은 방종한 마음이 過하여 交人에서 해를 당할 때의 怒心을 중시한다<sup>14)</sup>. 이러한 人事의 能·不能과 이로 인한 欲心이나 放心도 체질별로 차이

9)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二統』

“太陽之安身 點於居處而不點於事務 少陰之安身 點於事務而不點於居處 少陽之安身 點於黨與而不點於交遇 太陰之安身 點於交遇而不點於黨與.”

10)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二統』

“是故 太陽之欲心 詐於居處而不奮於事務 少陰之欲心 奮於事務而不詐於居處 少陽之欲心 懶於黨與而不侈於交遇 太陰之欲心 侈於交遇而不懶於黨與.”

1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二統』

“太陽人之心 每不得所欲 而忿懣之心恒放於胸中也 少陰之心 每欲得所欲 而好樂之心 恒放於胸中也 少陽之心 大不得所欲 而憂患之心 恒放於胸中也 太陰之心 大欲得所欲 而恐懼之心 恒放於胸中也.”

1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二統』

“太陽之接人 能於交遇而不能於黨與 少陰之接人 能於黨與而不能於交遇 少陽之接人 能於事務而不能於居處 太陰之接人 能於居處而不能於事務.”

1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二統』

“是故 太陽之放心 驕於交遇而不謙於黨與 少陰之放心 謙於黨與而不驕於交遇 少陽之放心 傲於事務而不侮於居處 太陰之放心 侮於居處而不傲於事務.”

14)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二統』

“蓋太陰之心 物慾之過也 好家居之 樂心最重也 少陰之心 安逸之過也 黨人有利之 喜心最重也 少陽之心 自私之過也 大與事之 哀心最重也 太陽之心 放縱之過也 交人有害之 怒心最重也.”

를 보인다.

이를 보면 知行的 일부분인 人事의 能·不能에 의해 欲心이나 放心과 같은 心慾이 발생하며, 이러한 心慾은 인간의 偏小之臟에 영향을 주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安身에서의 欲心を 극복하기 위해서는 知命하는 것이 중요하고<sup>15)</sup>, 接人에서의 放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盡性하는 것<sup>16)</sup>이 중요하다. 즉 性命을 통하여 知行을 조절할 수 있고, 知行의 조절을 바탕으로 欲心이나 放心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인식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心慾의 발생기전과 극복방식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安身	人事의 能·不能	點於居處而不點於事務	點於黨與而不點於交遇	點於交遇而不點於黨與	點於事務而不點於居處
	欲心	詐於居處	懶於黨與	侈於交遇	怠於事務
	欲心の 극복	有是點而有是惡 衆人皆然 惟知命者不然			
接人	人事의 能·不能	能於交遇而不能於黨與	能於事務而不能於居處	能於居處而不能於事務	能於黨與而不能於交遇
	放心	驕於交遇	傲於事務	侮於居處	謔於黨與
	放心의 극복	放縱之過也 (怒)	自私之過也 (貪)	物欲之過也 (榮)	安逸之過也 (昏)
		有是能而有是惑 衆人皆然 惟盡性者不然			

2) 事心身物 中心의 人間觀

인간을 事心身物로 인식한 내용을 정리하면, 事心身物의 四元構造는 東武公의 대표적인 哲學書인 『格致藁』의 주요 인식방식으로

『格致藁』에서는 인간과 세상에 관하여 다양하게 事心身物을 정리하였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표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인간을 事心身物의 관점으로 인식한 내용을 정리하겠다.

표 5. 四象의 本體論的 認識

事	誠決	散	萬	大	治平	貌言視聽
心	慧覺	聚	--	小	格致	學問思辨
身	能行	群	一	近	誠正	屈放收伸
物	動止	居	萬	遠	修齊	意慮膽志

『格致藁·儒略』에서의 事心身物은 ‘近取諸身 遠取諸物’의 관점하에 정리되어 인간 개체는 ‘近取諸身’의 心身으로 구성되며 개체 외적인 환경은 ‘遠取諸物’의 事物로 구성된다 인식하였으며, 『格致藁·儒略』에서는 事心身物의 四象을 本體論的으로 정리한 반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인간을 事心身物로 분류함에 心身이나 知行과 연관하여 관련성을 서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우선 事心身物과 知行의 관계에 관하여 알아보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四統』에서 『格致藁』에서의 언급된 事心身物의 배속과 유사한 내용이 언급되고<sup>17)</sup>, 다음으로 인간을 兩儀에서 인식하면 性·形으로 나누어지며 여기에 각각의 쓰임이 있어 性用과 形用이 되며 性用에 의해 知가 이루어지고 形用에 의해 行이 이루어진다<sup>18)</sup>. 이를 확대하면

1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二統』  
 “是故 太陽之欲心 詐於居處而不僣於事務 少陰之欲心 怠於事務而不詐於居處 少陽之欲心 懶於黨與而不侈於交遇 太陰之欲心 侈於交遇而不懶於黨與 註 有是點而有是惡 衆人皆然 惟知命者不然。”  
 1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二統』  
 “是故 太陽之放心 驕於交遇而不謔於黨與 少陰之放心 謔於黨與而不驕於交遇 少陽之放心 傲於事務而不侮於居處 太陰之放心 侮於居處而不傲於事務 註 有是能而有是惑 衆人皆然 惟盡性者不然。”  
 17)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四統』  
 “神安意 氣安魄 血安魂 精安志 首能伸 肱能收 腹能放 股能屈 肺安學 脾安問 肝安思 腎安辨 耳能聽 目能視 舌能言 頤能貌 精神氣血之能 周而暢也 周而暢 故載萬物也 首腹肱股之能 堅而動也 堅而動 故行萬物也 肺脾肝腎之能 忍而容也 忍而容 故知萬物也 耳目鼻口之能 敏而捷也 敏而捷 故覆萬物也。”  
 18)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四統』

四象이 되는데, 知에는 舒卷이 있으며 行에는 進退가 있어 이의 작용으로 知가 舒하면 覺하고, 知가 卷하면 決하고, 行이 進하면 動하고, 行이 退하면 止한다<sup>19)</sup>고 언급되는데,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事·心은 知와 관련이 되며 身·物은 行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표 6. 事心身物과 知行的 관계

事	貌言視聽	耳目口鼻	敏而捷	覆萬物	決	知舒
心	學問思辨	肺脾肝腎	忍而容	知萬物	覺	知卷
身	屈放收伸	首腹脇股	堅而勤	行萬物	動	行進
物	意魄魂志	神氣血精	周而暢	載萬物	止	行退

다음으로 事心身物과 心身·知行的 관계에 관하여 언급이 이루어지는데<sup>20)</sup>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事心身物과 心身·知行的 관계

事	肅艾哲謀	一身務圖國家之所爲	憂一身而不放	自明誠	行誠
心	明慎審博	一心交遇衆人之所爲	憂天下而不措	自誠明	知明
身	勤能慧誠	一身自幼至老之所爲	愛一身而至敬	自明誠	行誠
物	利勇謀知	一心處在天下之所爲	愛天下而至誠	自誠明	知明

“性有性用 性用知也 形有形用 形用行也 ……知一行 一生一成 易簡相得者 謂之兩儀.”

19)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四統』

“知有舒卷 舒而決 卷而覺也 行有進退 進而動 退而止也 ……決一覺 一動一止 一舒一卷 一進一退 變靜動化者 謂之四象 止有四象 魄魂心意也 動有四象 屈放收伸也 覺有四象 辨思問學也 決有四象 貌言視聽也.”

20)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四統』

“志膽心意 利勇謀知也 利勇謀知 物之用也 屈放收伸 勤能慧誠也 勤能慧誠 身之用也 辨思問學 明慎審博也 明慎審博 心之用也 貌言視聽 肅艾哲謀也 肅艾哲謀 事之用也 利勇謀知 物隨身也 君子于止 萬物化也 勤能慧誠 身帥物也 君子于動 萬物動也 明慎審博 物觸心也 君子于覺 萬物靜也 肅艾哲謀 心明物也 君子于決 萬物變也 利勇謀知 太公之兵法也 ……心處在天下之所爲也 明慎審博 夫子之教詔也 一心交遇衆人之所爲也 勤能慧誠 舉一隅而三隅反也 一身自幼至老之所爲也 肅艾哲謀 孔明之智略也 ……一身務圖國家之所爲也 喜怒哀樂之未發無妄日中 既發中節日和 無妄者行誠 中節者知明也 憂憂天下而至誠不措則 雖恐必明 憂憂一身而不放至敬則 雖柔必剛 志膽心意愛天下而至誠 學問思辨憂天下而不措 貌言視聽憂一身而不放 屈放收伸愛一身而至敬 至誠不措者自誠明也 自誠明者知明也 不放知明者自明誠也 自明誠者行誠也 知明行誠 恭敬天命而無所怒天則 喜怒哀樂自無暴發而未發中也 行誠知明通達人性而無所尤人則 喜怒哀樂自不暴發而皆中節也.”

2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五統』

“初·齡至十六齡曰幼 十七齡至三十二齡曰少 三十三齡至四十八齡曰壯 四十九齡至六十四齡曰老.”

2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五統』

“凡人 幼年 好聞見而能愛敬 如春生之芽 少年 好勇猛而能騰捷 如夏之苗 壯年 好結交而能修飾 如秋斂之實 老年好計策而能秘密 如冬藏之根.”

즉 事心身物과 心身の 관계를 보면 心·物이 心과 관련이 되며 事·身이 身과 관련되고 이를 知行과 연결하면 心·物은 知와 관련이 되고 事·身은 行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 3) 東武公의 壽命觀

#### (1) 年齡段階의 分類

東武公은 인간의 연령을 네 단계로 분류하고<sup>21)</sup> 각 연령에 따라 지켜야 할 항목에 관하여 제시하였다<sup>22)</sup>.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東武公의 연령분류

분류	연령	권유 항목
幼	1세 ~ 16세	幼年好聞見而能愛敬 如春生之芽
少	17세 ~ 32세	少年好勇猛而能騰捷 如夏之苗
壯	33세 ~ 48세	壯年好結交而能修飾 如秋斂之實
老	49세 ~ 64세	老年好計策而能秘密 如冬藏之根

#### (2) 減壽要因과 得壽要因

東武公이 제시한 삶의 목표는 東武公이 비교적 末年인 61세에 저술한 『五福論』에서 알 수 있다. 즉 東武公이 사람이 살아가며 얻는 다섯 가지의 복으로 ‘壽·美心術·讀書·

家産·行世'을 제시하며<sup>23)</sup> 이중에 壽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sup>24)</sup>. 또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삶의 목표로 “慾心으로써 이치를 살피고 몸을 사물보다 앞에 두고, 손해를 억제하고 이익을 높이며 萬物에게 참된 삶의 방식을 열어주고 임무를 완성하면서, 70·80·90세의 장수를 누리는 것”<sup>25)</sup>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보면 東武公은 壽를 누리는 것을 삶의 중요한 목표로 여겼음을 알 수 있고 그의 저서를 보면 인간이 長壽를 누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에 관한 다양한 인식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東武公은 인간의 건강 상태와 질병 상태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命脈實數’를 제시하였다. 우선 東武公은 太少陰陽人 별로 偏小之臟과 偏大之臟이 존재하며, 모든 발병요인이 偏小之臟에 영향을 주어 질병을 유발한다<sup>26)</sup>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각자의 인간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偏小之臟의 本常之氣를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인간이 자신이 타고난 壽命을 누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偏小之臟의 本常之氣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減壽要因을 제거하고 保命要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는데, 東武公은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壽命을 감소시키는 減壽要因으로는 ‘嬌奢, 懶怠, 偏急, 貪慾’을 제시하였으며<sup>27)</sup> 壽命을 보호하는 保命要因으로는 知行的 恭敬으로 발생하는 ‘簡約, 勤幹, 警戒, 聞見’을 제시하였다<sup>28)</sup>. 減壽要因으로 제시한 ‘嬌奢, 懶怠, 偏急, 貪慾’은 각 체질별로 東武公이 제시한 心慾<sup>29)</sup>과 유사한 내용을 보이는데 이에 의해 酒色財權에 빠지게 되고<sup>30)</sup> 酒色財權으로 인해 居處, 行身, 用心, 事務에 문제가 생겨<sup>31)</sup> 질병이 발생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保命要因인 ‘簡約, 勤幹, 警戒, 聞見’을 제시하였는데 保命要因은 知行的 恭敬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통하여 酒色財權을 조절하여<sup>32)</sup> ‘居處·行身·用心·事務’가 원활해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서

- 23) 『濟衆新編·五福論』  
“人生至樂 有五 一曰壽 二曰美心術 三曰讀書 四曰家産 五曰行世.”
- 24) 『濟衆新編·五福論』  
“不得壽則美心術而無益 不美心術則讀書而無用 不讀書則家産而無成 不家産則行世而無實.”
- 2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五統』  
“賢人之力學 以慾察理 而以身先物 抑損揚益 開物成務 七八九十壽者 百福而兼壽也. 老氏之閑靖 畏慾害已 退處窮僻 戒虧保盈 遺世獨立 一百零壽者 一福而高壽也.”
- 2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二統』  
“太陽人 財權酒色 凡百內傷外觸皆損肝 故太陽人以肝臟剝削爲命脈長短. 太陰人 財權酒色 凡百內傷外觸皆損肺 故太陰人以肺臟剝削爲命脈長短. 少陽人 財權酒色 凡百內傷外觸皆損腎 故少陽人以腎臟剝削爲命脈長短. 少陰人 財權酒色 凡百內傷外觸皆損脾 故少陰人以脾臟剝削爲命脈長短.”
- 27)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一統』  
“嬌奢減壽 懶怠減壽 偏急減壽 貪慾減壽.”
- 28)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一統』  
“簡約保命 勤幹保命 警戒保命 聞見保命.”
- 29)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一統』  
“人趨欲心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鄙人(太陽人) 棄義而偷逸者 名曰懦人(少陰人) 棄智而飾私者 名曰薄人(少陽人) 棄仁而極慾者 名曰貪人(太陰人).”
- 30)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一統』  
“爲人嬌奢必耽侈色 爲人懶怠必嗜酒食 爲人偏急必擅權寵 爲人貪慾必慳貨財.”
- 3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一統』  
“居處荒涼 色之故也 行身聞葷 酒之故也 用心煩滿 寵之故也 事務錯亂 貨之故也.”
- 3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一統』  
“爲人簡約 必遠侈色 爲人勤幹 必節酒食 爲人警戒 必避權寵 爲人聞見 必清貨財.”



보면 東武公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知行에서의 修養을 통하여 心慾을 예방하여 酒色財權을 멀리하게 되어, '居處·行身·用心·事務'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체질별 減壽要因과 得壽要因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減壽要因 (心慾)	偏急	驕奢	貪慾	懶怠
	爲人偏急 必遭權寵	爲人驕奢 必耽侈色	爲人貪慾 必然貨財	爲人懶怠 必嗜酒食
	爲寵所蔽 必不安心	爲色所拘 必不治居	爲貨所惑 必不知務	爲酒所困 必不持身
得壽要因 (知行)	用心傾滿 寵之故也	居處荒涼 色之故也	事務錯亂 貨之故也	行身圖葺 酒之故也
	警戒	簡約	聞見	勤幹
	爲人警戒 必避權寵	爲人簡約 必遠侈色	爲人聞見 必清貨財	爲人勤幹 必節酒食
	爲人警戒 用心快活	爲人簡約 居處安樂	爲人聞見 事務通達	爲人勤幹 行身真正

이상의 내용과 같은 酒色財權에 빠지는 경향성은 체질경향 뿐만 아니라 직업과의 연관성도 제시되었는데, “山谷의 사람은 聞見에 어두워 貪慾하기 쉽고, 市井의 사람은 簡約을 소홀히 하여 驕奢하기 쉽고, 農耕의 사람은 勤幹을 버려 懶怠하기 쉽고, 讀書하는 사람은 警戒를 게을리하여 偏急하기 쉽다.”<sup>33)</sup>고 제시하고 각 직업별로 본인이 소홀히 하기 쉬운 保命要因을 확보하면 건강하게 壽命을 누릴수 있다<sup>34)</sup>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내용에서 東武公이 건강하게

壽命을 누리기 위해 제시한 減壽要因과 得壽要因은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東武公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념도 함께 제시하였다. 우선 恭敬하면 壽命을 누리고 怠慢하면 壽命을 줄이게 된다고 보고 인간의 중요한 생활 요소인 飲食, 衣服, 筋力, 財物에서의 恭敬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飲食은 배고픔을 참아낼 수 있으나 배부름을 탐내지 않는 것을 恭敬으로 삼으며, 衣服은 추위는 참아낼 수 있으나 따뜻함을 택하지 않는 것으로 恭敬을 삼고, 筋力은 절도있게 일하나 편안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恭敬으로 삼으며, 財物은 궁핍함을 참아낼 수 있으나 구차하게 얻지 않는 것을 恭敬으로 삼는다<sup>35)</sup>.”고 제시하였다.

### (3) 命脈實數

東武公은 인간의 질병에 관하여 偏小之臟을 本으로 생각하고 偏大之臟은 標로 생각하여, 偏小之臟의 本常之氣를 잘 유지하는 것을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偏小之臟을 온전히 잘 유지하여 偏大之臟과 대적할 정도가 되는 사람은 ‘極完境人’으로 파악하고 偏小之臟이 반 이상 손상된 사람은 ‘極壞境人’으로 파악하고, 偏小之臟의 손상이 반을 넘으면 사망하게 된다고 인식하며 偏小之臟의 本常之氣를 ‘命脈實數’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sup>36)</sup>. 이러한 인식하에 命脈實數의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인간의 건강과 질병상태를 분류하였는데<sup>37)</sup>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3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一統』

“山谷之人 昧於聞見而易爲貪慾 市井之人 忽於簡約而易爲驕奢 農耕之人 棄於勤幹而易爲懶怠 讀書之人 慢於警戒而易於偏急.”

34)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一統』

“山谷之人 有聞見則 必得高年 市井之人 能簡約則 自然吉祥 農耕之人 勉勤幹則 永保康寧 讀書之人 恒警戒則 終享福壽.”

3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一統』

“凡人恭敬則益壽 怠慢則減壽 飲食以能忍飢而不貪飽 爲恭敬 衣服以能忍寒而不擇溫 爲恭敬 筋力以能節勞而不便逸 爲恭敬 財物以能忍乏而不苟得 爲恭敬”

3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二統』

“太陽人 肝臟十分圓全而與肺相敵者 極完境人也 一半虧缺 而與肺讓倍者 極壞境人也 過此則死 以此推之 太陽人肝臟部一半 爲命脈實數 他臟倣此”

37)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二統』

같다.

표 10 命脈實數에 따른 건강상태

분류	命脈實數의 정도	특징
神仙	偏小之臟 臟氣의 16/16이 존재	其最高
清明	偏小之臟 臟氣의 15/16가 존재	精神清明
快輕	偏小之臟 臟氣의 14/16가 존재	一身快輕
康寧	偏小之臟 臟氣의 13/16이 존재	百體康寧
外感	偏小之臟 臟氣의 12/16가 존재	表氣外虧
內傷	偏小之臟 臟氣의 11/16이 존재	裏氣內損
牢獄	偏小之臟 臟氣의 10/16이 존재	其病如入獄
危傾	偏小之臟 臟氣의 9/16가 존재	其命逢危境

그러나 이상의 命脈實數가 타고난 후에 손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된다고 인식하여 이를 '生息充補之道'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다가 64세에 이르면 生息充補之道는 없어진다<sup>38)</sup>. 生息充補之道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면 그 중간에 해당하는 時期가 보통의 사람은 40세이므로 보통의 사람은 40세를 中年으로 삼는다. 따라서 40세까지는 命脈이 손상이 심하여도 당일에 쉽게 회복이 되나, 40세를 넘으면 회복에 여유가 없어 손상된 정도가 심하면 당일에 회복을 못하고 회복에 시간이 걸리게 되나 長壽를 누리는 사람은 60세까지도 生息充補之道가 왕성한 양상을 보여 60세를 中년으로 삼게 된다<sup>39)</sup>.

## 2. 體質論의 人間觀

東武公은 이 세상을 四元構造로 인식하였다. 기존의 동양학에서는 陰陽, 五行, 四象, 六氣, 八卦등 다양한 개념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분류하였으나, 東武公은 四象을 인식의 기본 단위로 생각하였고<sup>40)</sup>. 이를 근거로 인간도 四象으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東武公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분류하여야 하며, 각각의 특징과 구조나 기능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은 그 과정에서 東武公의 초기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四象分類

東武公은 본인의 기본 인식인 四元構造의 개념하에 인간도 네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분류의 근거는 心身의 兩面에서 제시하여 人稟臟氣와 人趨欲心에 따라 인간을 四象으로 분류하였다.

四臟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人稟臟理에 관하여 알아보면, 肺肝은 氣液을 呼散하고 吸聚하는 작용을 하며 脾胃은 水穀을 出納하는 기능을 하는데<sup>41)</sup> 肺와 肝이 상호 길항적으로 작용하고 脾와 腎이 상호 길항적으로 작용하므로 하나의 기능이 왕성하면 다른 기능은 저조하게 되어 肺肝에서는 肺大肝小와 肝大肺小의

“臟部--半 命脈實數 平分八載 第一載 名曰神仙度數 言其最高也 第二載 名曰清明度數 言精神清明也 第三載 名曰快輕度數 言一身快輕也 第四載 名曰康寧度數 言百體康寧也 第五載 名曰外感度數 言表氣外虧也 第六載 名曰內傷度數 言裏氣內損也 第七載 名曰牢獄度數 言其病如入獄也 第八載 名曰危傾度數 言其命逢危境 命脈之理微 忽難見 難見則難言 略分八載 著而明之 使難見者易見 難言者易言 每一載 亦各有初中終度數 八載又可分爲二十四載。”

38)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二統』

“命脈 雖間有損傷 六十四歲前 皆有生息充補之道 但老年不如壯年 少年不如幼年 少年生息得幼年四分之三 壯年生息得幼年四分之二 老年生息得幼年四分之一。”

39)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二統』

“故 平人以四十歲爲中年 極壽人以六十歲爲中年 幼年少年三十二年及壯年前八年 當日血氣之所損傷者雖大 而當日所生息者輒三四倍 有剩餘而充補之 自壯年始八年以後 當日生息亦有剩餘 而若當日損傷大則 當日充補不能快恰 至於老年則 當日生息亦不無稍餘 而當日損傷稍異平常則 當日充補不能支持。”

40) 『格致彙 反誠箴, 巽箴』

“易曰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太極 心也 兩儀 心身也 四象 事心身物也 八卦 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心之緩急 身有身之先後。”

4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五統』

“脾以納 腎以出 脾胃者出納水穀道之府庫也 肝以充 肺以散 肝肺者散充氣道之門戶也。”

두 가지 양상만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脾胃에서 脾大腎小와 腎大脾小의 두가지 양상만을 만들므로<sup>42)</sup> 이로 인해 太少陰陽人의 네 가지 체질을 만들게 된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臟局을 만드는 것은 喜怒哀樂의 性情의 闊散과 促急에 의해 이루어진다<sup>43)</sup>고 설명하였다. 또한 人趨欲心에서도 네 가지의 편차가 발생한다<sup>44)</sup>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 이르면 人稟臟理에 의한 四象分類와 太少陰陽人과의 관련성은 유지되나, 人趨心欲에 의한 四象分類와 太少陰陽人과의 관련성은 사라지게 된다.

## 2) 分類의 기준

東武公 思想의 완성단계인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는 체질분류의 기준으로 性情, 體形氣像, 性質材幹, 容貌詞氣, 體質病證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초기저서인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의 체질분류를 위한 기준을 살펴보면, 근원적이며 내면적인 요소로는 性情에 의한 臟腑性理의 차이에 의해 體質을 分類하며, 외형적인 요소는 그 사람이 知行에서 드러내는 知行之象을 근거로 體質을 分類하고자 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臟腑性理에 의한 體質分類

기존에도 인간의 차별성을 언급한 내용은 東洋醫學의 여러 서적에서 언급되었으나 각 체질별로 生理·病理·治療에서도 명확하게 차이를 정리하여 體質病證을 완성한 것은 東武公에 이르러서 이다. 그의 초기 서적인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도 太少陰陽人의 臟理에서의 차이를 언급하고 臟理의 편차는 性情의 편차에서 유발된다<sup>45)</sup>고 인식하였다. 우선 기존 儒學에서 인식한 性情을 살펴보면 性은 마음속에 존재하면서 그 근원을 이루고 있으며 마음은 육체에 붙어있어 육체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음에는 性외에 情이 있는데 情은 性이 구체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性이 情으로 변하는 과정에는 思慮, 分別, 計較, 商量, 知覺 등이 존재하며 性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좋은 색을 좋아하고 나쁜 냄새를 싫어하도록 명령하는 작용이라면 이 작용이 구체화되어 실지로 좋은 색을 좋아하고 나쁜 냄새를 싫어하게 되는 마음을 情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性은 동일하고 性이 情으로 변환되는 과정의 차이에 思慮, 分別, 計較, 商量, 知覺 등이 다른 양식으로 조절하게 되어 사람마다 情에서는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인식하였으며<sup>46)</sup> 性에는 仁義禮智, 健剛柔順이 존재하며 情에는 喜怒哀樂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였

4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一統』

“肺強則肝弱 肝強則肺弱 脾強則腎弱 腎強則脾弱 互相盈縮 迭爲進退 參伍以變 錯綜其數 求之有道 得之有命 聖人與衆人…同也.”

4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一統』

“太陽人 哀性闊散而怒情促急 哀性闊散則氣注肺而肺益壯 怒情促急則氣激肝而肝益削 太陽人肺實肝虛者 此之故也. 少陽人 怒性闊散而哀情促急 怒性闊散則氣注脾而脾益壯 哀情促急則氣激腎而腎益削 少陽人脾實腎虛者 此之故也. 太陰人 喜性闊散而樂情促急 喜性闊散則氣注肝而肝益壯 樂情促急則氣激肺而肺益削 太陰人肝實肺虛者 此之故也. 少陰人 樂性闊散而喜情促急 樂性闊散則氣注腎而腎益壯 喜情促急則氣激脾而脾益削 少陰人腎實脾虛者 此之故也.”

44)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一統』

“人趨欲心有四不同 棄體而放縱者 名曰鄙人(太陽人) 棄義而偷逸者 名曰懦人(少陰人) 棄智而飾私者 名曰溥人(少陽人) 棄仁而極慾者 名曰貪人(太陰人).”

4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一統』

“太陽人 哀性闊散而怒情促急 哀性闊散則氣注肺而肺益壯 怒情促急則氣激肝而肝益削 太陽人肺實肝虛者 此之故也. 少陽人 怒性闊散而哀情促急 怒性闊散則氣注脾而脾益壯 哀情促急則氣激腎而腎益削 少陽人脾實腎虛者 此之故也. 太陰人 喜性闊散而樂情促急 喜性闊散則氣注肝而肝益壯 樂情促急則氣激肺而肺益削 太陰人肝實肺虛者 此之故也. 少陰人 樂性闊散而喜情促急 樂性闊散則氣注腎而腎益壯 喜情促急則氣激脾而脾益削 少陰人腎實脾虛者 此之故也.”

46) 이기동, 大學·中庸 講說, 成均館大學校出版部, 2000, p.94

다. 그러나 東武公은 喜怒哀樂 자체를 性·情의 兩面에서 인식하고 情에서 뿐만 아니라 性에서도 四象人의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臟腑性理에 의한 體質分類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性	性	哀性闊散	怒性闊散	喜性闊散	樂性闊散
	性氣	恒欲進而不欲退	恒欲舉而不欲措	恒欲靜而不欲動	恒欲處而不欲出
情		怒情促急	哀情促急	樂情促急	喜情促急
기전		哀性闊散而怒情促急 哀性闊散則氣注肺而肺益壯 怒情促急則氣激肝而肝益劑	怒性闊散而哀情促急 怒性闊散則氣注脾而脾益壯 哀情促急則氣激腎而腎益劑	喜性闊散而樂情促急 喜性闊散則氣注肝而肝益壯 樂情促急則氣激肺而肺益劑	樂性闊散而喜情促急 樂性闊散則氣注腎而腎益壯 喜情促急則氣激脾而脾益劑
人稟臟理		肺大肝小	脾大腎小	肝大肺小	腎大脾小

하였다. 즉 네 체질중에 少陰人과 太陽人은 知的 측면이 主가 되고, 少陽人과 太陰人은 行이 主가 되며, 知가 過하면 知가 되고, 知가 不及하면 愚가 되고, 行의 過하면 賢이 되고, 行이 不及하면 不肖가 된다<sup>47)</sup>. 이러한 知行之象을 근거로 東武公은 역대의 인물들을 그들의 행적에 따라 四象으로 분류하고 있고<sup>48)</sup> 이를 근거로 四象之象도 함께 제시하였는데<sup>49)</sup>,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知行之象에 의한 體質分類

분류	양상	邪心		
太陽人	知而過	象人之過於知者 易爲詐也	夫子之周遍 立於道	立於身
少陽人	不肖而不及	象人之不肖而不及者 易爲懶也	子思之中庸 行於誠	誠於物
太陰人	賢而過	象人之賢而過者 易爲侈也	孟子之雄辯 言於善	善於事
少陰人	愚而不及	象人之愚而不及者 易爲膏也	曾子之治平 明於德	明於心

47)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四統』

“太陽之知 知而過也 象人之過於知者 易爲詐也 少陰之知 愚而不及也 象人之愚而不及者 易爲膏也 太陰之行 賢而過也 象人之賢而過者 易爲侈也 少陽之行 不肖而不及也 象人之不肖而不及者 易爲懶也.”

48)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四統』

“孔子稟太陽 大禹孟子稟太陰 帝舜子思稟少陽 帝堯曾子稟少陰 漢太祖稟太陰 唐太宗稟少陽 漢光武稟少陰 范蠡稟太陰 管仲稟少陽 晏嬰稟少陰 黃石公稟太陽 司馬穰苴稟太陰 太公孫武稟少陽 諸葛亮吳起稟少陰 李太白稟太陽 司馬遷杜甫稟太陰 賈誼李長吉蘇軾稟少陽 班固王勃韓退之稟少陰 王羲之稟太陰 柳公權稟少陽.”

49)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病變之第四統』

“夫子之周遍 立於道也 立於道者立於身也 太陽之象也 曾子之治平 明於德也 明於德者明於心也 少陰之象也 孟子之雄辯 言於善也 善也者善於事也 太陰之象也 子思之中庸 行於誠也 誠也者誠於物也 少陽之象也.”

(2) 知行之象에 의한 體質分類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東武公은 근원적이고 내면적인 性情에 의한 臟理의 偏差에 근거한 체질분류 외에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知行에서의 차이에 의한 體質分類를 중요하게 여겨 知行之象을 통한 체질감별을 제시

IV. 考 察

東武公의 醫學은 다른 醫學과는 달리 人間에 관한 이해를 중시하여서 그의 醫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人間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東武公 人間觀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는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공통적인 요소와 각 인간만이 가지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아 그의 人間觀은 一般論的 側面과 體質論的 側面에서 설명되어졌다. 우선 東武公의 一般論的 人間觀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다.

一般의 人間觀에서 東武公은 사람이 성인에서부터 愚人이나 不肖人의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와 사람의 壽命이 편차가 나는 이유 등을 중요한 화두로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과 『東醫壽世保元·性命論』에 기술하였다. 『東醫壽

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인간은 크게 心身の 兩面에서 개체를 구성하며 心에서 心慾이 발생하며 身은 肺脾肝腎으로 구성되며 여기서 知行이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인간에서 肺脾肝腎의 臟局과 心의 心慾은 네가지의 편차를 보이거나 臟局 네가지 편차는 聖人과 衆人 모두 동일한 것이나<sup>50)</sup> 心慾에서는 聖人과 衆인이 편차를 보인다<sup>51)</sup>고 인식하였다. 즉 인간의 편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身보다는 心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東醫壽世保元』에서는 인간이 聖人に 이르기 위해서는 責心하고 責氣하여 성인에 이르도록 강조하였다<sup>52)</sup>. 다음으로 인간의 壽命에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을 정리하면 命脈實數와 生息充補之道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命脈實數는 각자의 偏小之臟의 남아있는 臟氣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臟氣의 정도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東武公은 이러한 命脈實數에서도 타고난 정도만을 가지고 인간의 壽命이 결정된다고 인식하지는 않았다. 이를 위해서 生息充補之道의 개념을 도입하여, 生息充補之道는 본인의 知行에 따라 매일 손상되는 臟氣를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生息充補之道는 心慾과 知行의 修養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수명은 타고난 臟氣도 중요하지만 心慾을 조절하여 嬌奢·懶怠·偏急·貪慾의 減壽要因

을 제거하고 知行을 修養하여 聞見·警戒·勤幹·簡約의 得壽要因을 회복하면 生息充補之道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壽命은 연장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상의 東武公의 인식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東武公의 人間觀은 선천적인 요소로만 이루어진 存在論의 人間觀이 아닌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개선이 가능한 行爲論의 人間觀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體質論의 人間觀에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東武公은 그의 주요한 철학서인 『格致彙』에서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는 四象임을 밝히고, 인간은 心身の 양면으로 이루어진 존재로서 身은 肺脾肝腎의 四臟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四臟의 작용에 의해 체질적 편차가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四臟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臟局의 양상에 관하여 알아보면, 肺肝은 氣液을 呼散하고 吸聚하는 작용을 하며 脾腎은 水穀을 出納하는 기능을 하는데<sup>53)</sup> 肺肝이 상호 길항적으로 작용하며, 脾腎도 각자 상호 길항적으로 작용하므로 하나의 기능이 왕성하면 다른 기능은 저조하게 되어 肺肝에서는 肺大肝小와 肝大肺小의 두가지 양상만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脾腎에서는 脾大腎小와 腎大脾小의 두가지 양상만을 만들므로<sup>54)</sup> 이로 인해 太少陰陽人의 네가지 체질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臟局의 양상은 喜怒哀樂의 편차에 의해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런

50)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一統』

“肺強則肝弱 肝強則肺弱 脾強則腎弱 腎強則脾弱 互相盈縮 迭爲進退 參伍以變 錯綜其數 求之有道 得之有命 聖人與衆人一也。”

5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一統』

“四德爲慾心所陷 而有一面廢棄者 有二三四面俱廢棄者 有右明而左暗者 有左明而右暗者 四德爲誠心所擴 而有一體充備者 有四體具備者 有善人信人者 有充實光輝者 有散而參差 直而高低 間間自別 層層不同 間間參差者 衆人也 層層高低者 賢良也 聖人衆人萬殊也。”

52) 『東醫壽世保元·性命論』

“存其心者 責其心也 心體之明暗 雖若自然而 責之者清 不責者濁 馬之心覺 點於牛者 馬之責心 點於牛也 鷹之氣勢 猛於鷓者 鷹之責氣 猛於鷓也 心體之清濁 氣宇之強弱 在於牛馬鷓鷹者 以理推之而 猶然 況於人乎 或相信徒 或相千萬者 豈其生而輒得 茫然不思 居然自至而然哉”

5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五統』

“脾以納 腎以出 脾腎者 出納水穀道之府庫也 肝以充 肺以散 肝脾者 散充氣道之門戶也。”

54)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一統』

“肺強則肝弱 肝強則肺弱 脾強則腎弱 腎強則脾弱 互相盈縮 迭爲進退 參伍以變 錯綜其數 求之有道 得之有命 聖人與衆人一也。”

사고 아래 사람들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 또한 내면적인 人性과 외형적인 人形의 兩面에서 제시하였는데, 근원적이고 내면적인 요소는 心에서의 性情에 의한 臟理偏差에 의해 체질을 분류하는 것이고, 외형적인 요소로는 身에서는 知行의 偏差에 의해 체질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정리되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人間觀을 타 저서의 人間觀과 비교하여 특징을 알아보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의 人間觀은 유학적 배경에서 정리된 人間觀으로 인간을 내면적인 人性의 부분과 외형적인 人形の 兩面에서 고찰하여 내면적인 요소에서는 心에서의 性情에 의한 臟理를 인식의 핵심으로 여기고, 외형적인 요소에서는 知行之象을 인간 인식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를 초기의 저서인 『教子平生箴』이나 후기 저서인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의 人間觀과 비교하면 『教子平生箴』에서는 인간을 心中심에서 고찰하여 ‘喜怒哀樂’의 性情을 중시한데 비하여,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과 유사하게 인간을 내면적인 人性의 부분과 외형적인 人形の 兩面에서 고찰하였으며 내용이 좀더 세밀하게 정리되어, 근원적이고 내면적인 요소에 의한 體質分類는 心에서의 性情의 편차에 의한 臟理의 차이를 제시하고, 외형적인 요소에 의한 體質分類에서는 知行之象을 통해 체질을 분류하는 내용은 사라지고 體形氣像등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인간을 분류하였다.

### V. 結 論

1. 東武公의 人間觀은 인간의 인식에서 四象哲學의 本體論인 事心身物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人性·人形の 배경에서 人性을 心으로 人形을 知行之象으로 인식하는 心身論的 人間觀과 人性을 臟腑性理로 人形을 知行之象으로 인식하는 事心身物의 人間觀

을 함께 제시하였다.

2.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제시된 一般論的 人間觀은 心에서는 性情이 이루어지고 身(肺脾肝腎)에서는 知行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性情과 知行의 修己 過程을 통하여 聖人의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제시하였고, 性情보다는 知行의 修養을 강조하였다.
3. 東武公의 壽命觀은 선천적 요소보다는 후천적 요소를 중시하여, 壽를 위해서 약물적 요소와 비약물적인 요소인 心慾과 知行의 調養을 통하여 體質別 偏小之臟 本常之氣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이중에 비약물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제시된 體質論的 人間觀은 인간을 人性에서의 臟腑性理와 人形에서의 知行之象을 기준으로 四象으로 분류하는 體質論的 人間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5. 初期 『教子平生箴』의 人間觀은 心中심의 ‘性慾論的 體質論’이며,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人間觀은 人性에서의 臟腑性理와 人形에서의 知行之象을 함께 고려한 人間觀이며, 이는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의 臟腑性理와 體形氣像을 중심으로 하는 ‘形象觀的 體質論’으로 발전된다.

### VI. 參 考 文 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醫學會刊行, 서울, 대성문화사, 1998
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刊行, 서울, 2000
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 2001
4.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1997
5. 김달래편역, 東醫壽世保元草藁, 서울, 정담, 1997
6. 이창일역주, 東武遺藁, 서울, 청계, 1999

7. 이기동, 大學·中庸 講說, 成均館大學校出版部, 2000, p.94
8. 지규용역해, 東武格致葉譯解, 서울, 영림사, 2001
9. 김선민,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의 養生에 관한 고찰, 四象體質醫學會誌, 2000, Vol.12 No.1 pp.101-109
10. 김선민,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과 『東武遺藁』의 素證에 관한 考察, 四象體質醫學會誌, Vol.12 No2 pp.67-77
11. 송일병, 李濟馬의 儒學的 人間觀과 醫學精神, 四象體質醫學會誌, Vol.12 No.1 pp.1-9
12. 송일병,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李濟馬의 治療醫學精神, 四象體質醫學會誌 Vol 13 No.2 p.2
13. 옥윤영,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 初版本의 비교를 통한 사상 방제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四象體質醫學會誌, 2000, Vol.12 No.2 pp.43-55
14. 李壽瓊,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서지학적 연구, 四象體質醫學會誌, Vol.11 No.1 pp.63-78
15. 이재원,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李濟馬의 四象醫學觀에 관한 비교 고찰, 四象體質醫學會誌, 1999. Vol.11 No.2 pp.75-94